

Asahi, 구미 유리기판 공장 건설

1단계 1억5000만달러 투자 ... 일본에서도 대형 LCD 유리 증산

일본 Asahi Glass의 한국법인인 아사히 초자화인 테크노 코리아(AFK)가 8월26일 구미 국가4공단 5블럭에서 TFT-LCD(초박막 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용 유리기판 공장 기공식을 갖는다.

Asahi Glass는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생산라인을 늘여 나갈 계획인데, 1단계로 1억5000만달러가 투자돼 건설될 생산시설은 3만2258㎡의 공장으로 2005년 5월 준공된다.

국내 관련업계는 AKF의 공장이 가동되면 LCD 유리기판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과 함께 가격경쟁력의 우위로 국내 LCD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sahi Glass는 일본에서도 차세대 대형 LCD(액정표시장치)용 유리 증산을 위해 140억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따르면, Asahi Glass는 일본 효고현 소재 공장의 생산능력을 20% 늘리기 위해 2005년 10월까지 공장 증설을 끝내고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산시설 증설로 효고현 공장의 생산능력은 400만㎡로 확대되며 Asahi Glass의 전체 생산능력은 2200만㎡로 확대된다.

Asahi Glass는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LCD 패널의 수요는 일시적인 부진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4/08/25>